

일본내(日本内)의 김삿갓 문학에 대한 평가양상*

박 상 도**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내의 일본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김삿갓 문학에 대한 일련의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식민지시대 문학자인 사토하루오를 비롯한, 미요시타쓰지, 소마기요시, 이마무라 요시오 등의 논고가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본고는 조선의 방랑시인 김삿갓의 문학적 면모가 이웃나라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에 대한 소박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김삿갓 문학의 평가라는 것이 어떠한 관점, 가치 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본인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김삿갓 한시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고 예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김삿갓 문학의 특성 중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이해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얻게 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치적 항거의 상징」으로 김삿갓 문학이 이해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김삿갓 문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언문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셋째로 김삿갓 한시의 특질에 대해 「우아하며 이지적」이고, 「서민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의 일본인의 처한 위치, 전공분야에 의해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상이하였지만, 조선의 전통시인이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여건 하에서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김삿갓 문학의 특징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정서에 맞게 세세하게 이해하고 수용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김삿갓 문학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러한 일본 내의 김삿갓 문학평가에 대한 일련의 양상들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일본지식인, 김삿갓, 정치적 항거, 언문시, 문학적 특성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Ⅲ. 일본지식인의 평가양상 |
| Ⅱ. 일본 내의 김삿갓 연구 역사 | Ⅳ. 나오는 말 |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전임강사 / sdpark@swu.ac.kr

I. 들어가는 말

김삿갓을 주제로 한 이문열의 소설 『시인』이 해외에 번역, 소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김삿갓을 테마로 하여 해외의 연구자가 연구한 사례가 있을까? 다만 해외에서의 연구사례를 국내에서 소개한 경우는 필자가 확인한 것에 제한해서 말하자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김삿갓문학의 해외에서의 연구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기존 연구자들이 정리해 놓은 김삿갓의 연보를 볼 때, 김삿갓이 본격적인 방랑생활을 시작한 24세에서부터 전라도 동북에서 56세가 되어 객사할 때까지의 30년 가까운 기간은 김삿갓의 행적에 대해 전혀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¹⁾ 다만 『海藏集』, 『礫此集』, 『大東詩選』, 『大東奇聞』 등의 고자료의 단편적인 언급을 통해서 김삿갓의 행적을 추적할 뿐이고 무엇보다 김삿갓 연구가 이응수의 각고의 노력 끝에 편찬된 『金笠詩集』(学芸社, 1939)에 수록된 시를 통해 김삿갓의 면모를 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제한된 김삿갓 연구 환경 가운데서 김삿갓의 문학평가가 근원적으로 제한받는 아쉬움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김삿갓의 문학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 상황 가운데서 일본연구자들의 김삿갓 연구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²⁾

더욱이 일본 내에서의 김삿갓 연구의 현황을 볼 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전체적인 틀 안에서 분석하고 그 특징적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연 일본의 연구자들은 김삿갓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

그래서 본고에서는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일본 내에서의 김삿갓 연구의 현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나아가 특징적 요소를 분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텍스트로는 대중보판 『김립시집』(계명출판사, 1953)으로 하였고 논문과 책의 제목을 비롯해서 일본서적에서 인용한 모든 인용문등은 필자가 직접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1) 崔碩義, 『金笠詩選』, 平凡社, 2003, pp.371~372.

2) 국내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김삿갓 관련 연구 성과는 필자의 확인한 바 2000년 이후에 산발적으로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필자가 보건대 정대구의 논문(『김삿갓 시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업적을 뛰어 넘는 내용의 논문들은 발표되지 않은 실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김삿갓 연구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의 김삿갓 연구평가와 본고에서 분석한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의 비교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 朴相度 「日本知識人の金笠詩集の受け止め方」(『日本語・日本文化研究』 第13号, 大阪外国語大学日本語講座, 2003)는 『김립시집』의 일본 내 수용형태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내에서의 김삿갓 연구의 특징 및 실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요시타쓰지의 김삿갓문학비평에 관한 논문으로 「미요시타쓰지의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해서」론」(『일본학보』 65집, 한국일본학회, 2005)이 있는데, 이는 일본어로 된 논문이고 전체적인 김삿갓의 연구현황을 다루지 못했으므로 한국내의 독자들을 염두에 둘 때, 일본 내 김삿갓 연구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II. 일본 내의 김삿갓 연구 역사

일본에서 김삿갓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문학자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이다. 그는 김소운(金素雲)의 번역시집 『젖빛 구름(乳色の雲)』(河出書房, 1940)의 권두의 소개의 글 「조선의 시인들을 일본의 시단에 맞이하는 인사말(朝鮮の詩人等を日本詩壇に迎へんとするの辞)」에서 김삿갓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연구논문이 아니라 단순히 언급한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사토하루오의 당시의 일본 문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김삿갓에 대한 언급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 김삿갓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역시 일본의 문학자였던 미요시타쓰지(三好達治)이다. 그는 1941년에 일본의 가장 권위 있던 잡지 「문학계」에 김삿갓에 대한 논문을 5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다.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하여(放浪詩人金笠に就て)」라는 제목 하에 게재된 이 논문은 단행본 『옥상의 닭(屋上の鶏)』(文体社, 1943)에 정리되어 게재되었다. 미요시 역시 일본의 국민시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당시 조선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이응수가 편찬한 『김립시집』(학예사, 조선문고판, 1939년)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김삿갓론을 전개하였다. 우리말을 몰랐던 그는 당시 노리타케(則武)라는 일본청년과 이영준이라는 식민지 조선청년의 통역 및 번역의 도움을 힘입어 이응수의 주석을 이해하였던 것 같다. 김삿갓의 한시 30여 편을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토하루오와 미요시타쓰지는 당시 일본의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이었고 문학자였다. 이러한 두 사람에 의해서 김삿갓의 존재가 일본에 알려졌다 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당시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일본의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표적 방랑시인을 어떻게 평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시기의 일본인에 의한 김삿갓 관련 논문은 이 외에도 구니모토나오키(国本直樹)의 「김립시초(金笠詩抄)」(『태양』 1943년 9월호)가 있다.

그리고 1968년에 조선어학자인 소마키요시(相馬清)에 의해서 「김삿갓의 시풍(詩風)」이라는 논문이 「조선학보」(48집)에 게재되었다. 소마는 이 논문에서 21편의 김삿갓 시를 소개하면서 각각의 시에 대한 일본어 번역을 직접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소마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삿갓과 관련해서 이응수가 최초로 편찬한 『김립시집』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시 두 편 「樂民樓」, 「胡地花草」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마에 이어서 김삿갓 관련 연구논문을 내놓은 학자는 이마무라요시오(今村与志雄)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일본어 역자이기도 한 그는 「풍자와 서정 - 김삿갓 시의 감상과 비평(諷刺と抒情 - 金笠の詩の鑑賞と批評-)」(『역사와 문학의 재상』 勁草書房, 1976)이라는 제목으로 방대한 김삿갓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마무라는 전공이 일본사상인 만큼 김삿갓의 정치사상적인 측면의 면모를 부각시켜 논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식민지 통치가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던 때 대표적인 일본의 문학자에 의한 김

삿갓 문학평가가 이루어졌고, 패전 후 전후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던 일본사회의 풍조가운데서 문학자가 아닌 어학자와 사상사전공의 두 명의 지식인에 의해 김삿갓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에 김삿갓 관련 저작물을 일본에서 출판한 사람 중에 재일교포연구가인 최석의(崔碩義, 1927~)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1990년 한국의 김삿갓 전문가인 박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에서의 김삿갓 번역시집의 출간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그는 일본 내의 잡지에 김삿갓 관련 논문을 기고해 왔다.⁴⁾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방랑의 천재시인 김삿갓(天才の放浪詩人金笠)』(集英社, 2001)과 『김립시선(金笠詩選)』(平凡社, 2003)의 일본어서적물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삿갓의 대표적인 시를 비롯해서 김삿갓의 전기 등 일본의 일반적인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의 김삿갓 문학의 소개와 연구가 한국에서의 그것에 비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뜻있는 선학들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까지 진전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최석의의 김삿갓 번역시집의 출간은 일본의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전통시인 김삿갓이라는 인물을 일본사회에 소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할 수 있다. 그의 업적물은 국내의 김삿갓의 연구현황에 대한 이해와 지침서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본고도 이러한 연구 성과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Ⅲ. 일본 지식인의 평가양상

1. 김삿갓 시의 상징성 - 정치적 항거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 제일 먼저 김삿갓을 언급한 사람은 사토하루오이다. 사토는 김소운의 번역시집 『젓빛구름』에 대해서 「멸절해가는 언어를 가지고서 부른 마지막 노래」라고 평하고 있다.⁵⁾ 『젓빛구름』이 출판된 1940년부터 일제는 우리말로 쓰여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이나 『문장』, 『인문평론』 등의 문예잡지를 전부 폐간시켰다. 그리고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를 해산시키고 그 간부들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시키는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다.⁶⁾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가운데서 김소운이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번역하여 시집을 편찬했던 것이다. 아름다운 시적운율과 언어의 미적특성이 모국어로 표현되지 못한 그 애절함에 대해서 사토가 「멸

4) 최석의가 일본 내에서 발표한 김삿갓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와 생애」(『靑丘』 1995년 봄 계간호),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해서」(『世界』 1997. 12), 「이조의 방랑시인 김삿갓이야기」(『しにか』 2000. 1~6), 「김삿갓시소개 - 역주」(『鐘聲通信』 1993년 9월부터 19회 연재).

5) 이 시집에는 한용운에서 노천명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대표적 근대시를 번역, 편찬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1940년에 『乳色の雲』(河出書房)로 출판되었다가 1954년에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朝鮮詩集』로 다시 출판되었다.

6) 旗田巍, 『朝鮮の歴史』, 三省堂, 1974, p.249.

절해가는 언어를 가지고서 부른 마지막 노래」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시인의 시적언어는 그것이 낭송될 때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일본어로 만든 시는 일본어로 낭송될 때 그 맛이 있는 것이듯 조선어로 만든 시 또한 조선어로 낭송될 때 그 시가 지니는 본래의 독특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집이 아무리 훌륭히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원작자가 의도했던 본래의 시적 가치를 어느 정도 간직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토는 『젓빛구름』의 서문에서 중국의 북경을 가는 길에 조선 땅에 들렀음도 언급하고 있으며, 조선의 공예미술이 일상생활 가운데 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서문에서 조선의 시심(詩心)을 찬양하고 있는데, 조선의 시심의 상징으로 김삿갓을 예로 들고 있다. 김삿갓에 대한 그의 언급을 다음에 인용해 본다.

생각하건대 고려 말기이후의 이조500년을 통해서 전후 수세기에 걸친 악한 정치적 폐단은 본래 무능하지 않았던 이 백성의 많은 수를 늙고 교활한 무능한자로 만들었으며 용감한 자를 암살자로 세웠고 더구나 그 명석하고 순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묘책을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미 김삿갓과 같이 우수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의 시인과 많은 무명의 민요시인들이 존재하여 내가 하는 말의 유력한 증인이 되어 주고 있다. 정치에 실패한 백성이 시가(詩歌)의 영역에 있어서 성공한 것 또한 이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詩)의 부엽토(腐葉土)를 수 세기 간에 걸쳐 축적한 이 시가(詩歌)의 온상이 어느 아침에 태양빛을 받아 꽃을 피우는 장관을 보이게 된 것은 동양의 시심(詩心)을 위해서라도 더 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참으로 시(詩)의 신(神)은 거지의 모습으로 분장한 왕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잠드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예를 든다면 이는 맑고 차가운 지하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해의 해저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저 산 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시아의 시심(詩心)을 이 맑은 샘의 한 움큼으로 인해 부활시키려고 하는 깊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조선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답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는가?」(「조선의 시인들을 일본시단에 맞아들이고자 함에 붙이는 말」, 『젓빛구름』)

조선 500년의 「악한 정치적 폐단」 가운데서 조선의 시심(詩心)과 시적인 토양이 비축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실천문학사, 2000)에서 김삿갓 시를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삿갓에게는 상당한 양의 「풍자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⁸⁾ 그리고 이러한 「풍자시」는

7) 思ふに高麗末期以後李朝五百年を通じて前後數世紀の秕政は本来必ずしも無能でなかつたこの民の多くを老狡な無能者たらしめながらも、勇敢なものを暗殺者に仕立て、しかもその俊敏純真なものをして詩人として生きる妙法を教へる事を忘れなかつた。既に金笠の如き優秀奔放な生活の詩人と幾多無名の民謡詩人とが存して自分の言の有力な證人となつてくれる。政治に失敗した民が詩歌の領土に於て成功したのも亦暗示の多いのを覚える。詩の腐葉土を數世紀間蓄積したこの詩歌の温床が一朝日輪を得て百花一時に花咲くの盛觀を呈したのは東洋の詩心のために極まりなき祝福であつた。まことに詩神は乞食に身をやつた王の如く、不可思議な場所に眠ることを愛したものではある。また譬へばこれは清冽な地下水である。それが日本海の海底を潜つて今当嶽の此方に湧出した。正に奇蹟である。アジアの詩心をこの清泉の一掬によつて復活させようとする深い天意であるかも知れない。朝鮮がかういふ方法で我々に酬いようとは! (金素雲 『乳色の雲』, 河出書房, 1940, pp.6~7.)

거의가 기득권층에 대한 야유와 풍자로 일관되고 있다. 「악한 정치적 폐단」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메스를 대는 김삿갓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삿갓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악한 정치적 폐단」이라는 말은 사토가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치에 실패한 백성이 시가의 영역에서 성공」했다는 말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김삿갓의 연보를 확인해 볼 때 그가 방랑으로 내몰린 데는 특별한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삿갓은 순조7년(1807) 권세가문이었던 장동김씨(壯洞金氏)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조부(祖父)에 해당하는 김익순이 「홍경래의 난」에 연루됨으로써 조선왕조로부터 「멸족(滅族)」처분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김삿갓은 멸족의 자손으로서 세상의 학대와 멸시를 참지 못하여 20세에 방랑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⁹⁾ 이러한 김삿갓의 생애를 염두에 둘 때 사토가 표현한 「정치에 실패한 백성이 시가의 영역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그의 생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김삿갓에 대해서 「우수」하며 「자유분방」한 시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토의 이러한 김삿갓에 대한 평가는 한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김삿갓 평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토의 김삿갓 평가에 있어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폐단」, 「정치에 실패한 백성」이라고 한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삿갓 문학의 「정치적 항거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토의 김삿갓 평가는 비록 짧은 문장 안에서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시심(詩心)과 시적 토양의 대표적 인물로 김삿갓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토의 언급이 조선의 근대 시인들의 시집인 『첫빛 구름』의 서문에서의 언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삿갓의 정치적 항거성과 근현대시인들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암시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선 시인의 기질에는 김삿갓과 같이 「정치적 항거성」을 공유하는 시적기질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김삿갓의 이러한 면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미요시타쓰지이다. 미요시는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하여(放浪詩人金笠に就て)」라는 문장에서 김삿갓의 「정치적 항거성」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¹⁰⁾ 예를 들면 김삿갓의 시에 대해 미요시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자.

여기에 삿갓이 독립적으로 혼자 걸어 다니며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강한 기상을 가진 것과, 상당한 악취미의 악취를 사람의 코 끝에 풍기고 그러면서도 그 재주를 뽐내며, 양반들의 세속적 취미양식을 공격했을 것 같은 것들이 어쩐지 확실히 이해될 것 같기도 하다.¹¹⁾

8) 이 책에서는 김삿갓의 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인도주의 사상과 평민사상을 표현한 작품들, ②풍자시, ③영물시, ④자연풍경시와 향토시, ⑤연정시, ⑥과시.

9) 李應洙編 『金笠詩集』 啓明出版社, 1941, p.7.

10)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박상도 「미요시타쓰지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해서」론」(『일본학보』 65집, 한국일본학회, 2005)가 있다.(일본어 논문)

11) ここに笠が独立独歩いささかもものに拘らない氣象の強さと、超惡趣味の惡臭を故ら人の鼻先にふりまいて、その間にも才氣を誇りながら、恐らくは兩班どもの世俗的趣味良識に突つかかつてあただらう氣息とが、どうやら瞭然と看取され

미요시는 김삿갓의 시가 ‘양반들의 세속적 취미양식에 돌진’ 해 가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필자가 선행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요시의 김삿갓을 대하는 기본태도는 그의 전통적이고 보수성향의 시적경향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정치적 항거성’의 상징인물로서 김삿갓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요시는 김삿갓의 파격적이고 해학적인 시에 대해서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강한 기상’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삿갓이 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악취미의 악한 냄새를 사람의 코 끝에 뿌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재주를 뽐내며’라는 말로 비하하고 있다. 조선의 방랑시인 김삿갓의 ‘정치적 항거성’은 제국일본의 국민시인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언문시의 평가에 대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어학자인 소마키요시는 「김삿갓의 시풍(詩風)」이라는 논문을 『조선학보(朝鮮學報)』(48집, 1968)에 발표하였다. 그는 주로 『김립시집』의 전/후편 중, 전편에 있는 시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응수의 텍스트의 순서에 따라서 각각 (1)방랑(放浪), (2)인물(人物), (3)영물(詠物), (4)동물(動物), (5)산천누대(山川樓台), (6)잡(雜), (7)일화(逸話)의 각 편에서 몇 수씩을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樂民樓」와 「胡地花草」을 포함해서 21편을 소개하고 주석을 달고 있다. 그리고 그가 주로 전편의 시들을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삿갓의 표일(飄逸), 기행(奇行), 평민적이며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향시 세상을 풍자한 특이한 일면을 소개함에 있기 때문에 후편을 다루지 않고 주로 전편가운데서 대표작으로 여기지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¹²⁾ 소마는 이러한 그의 말대로 전체적으로 기행적이고도 평민적인 방랑시인 김삿갓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논문의 서론부분에서 그는 김삿갓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술을 좋아하고 기괴한 행동을 잘하며 아첨하지 아니하고 광시(狂詩), 광구(狂句), 광문(狂文)으로 권문세가를 야유, 조롱하며, 때로는 가명을 쓰거나 이름을 바꾸어서 과거장을 출입하며, 항상 장원을 놓친 적이 없으며, 그의 시풍과 문장의 필체는 과생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작품으로서 많은 한시이외에 광시(狂詩), 파자시(破字詩), 언문시(諺文詩), 광구광문(狂句狂文)이 있다. 기상천외(奇想天外)하며, 당의즉묘(當意即妙)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포복절도하게 만들며 더우기 촌철살인(寸鉄殺人)의 기개도 있었다. 특히 언문시나 파자시등에 이르러서는 조선음(朝鮮音)으로 음독이나 훈독을 하지 않으면 해독불능하게 되고 때로는 그 저의(底意)가 극히 비루(鄙陋)하다하더라도 표면의 문자는 훌륭한 한시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는 조선말을 해독하게 될 때만이 남모르는 웃음과 이야기거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¹³⁾

るやうに感じられる。(三好達治, 『屋上の鶏』, 文芸社, 1943, p.237.)

12) 相馬清, 「金笠の詩風」, 『朝鮮學報』 48輯, 1968. p.2.

13) 大酒奇行に富み, 世俗に諷らす, 狂詩狂句狂文を以て権門富豪を揶揄翻弄し, 時に替玉となり又変名して科場に出入り

소마키요시는 김삿갓의 특징을 ‘기상천외’, ‘당의즉묘’, ‘춘철살인’ 등의 특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실로 김삿갓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김삿갓의 언문시를 평가하고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선음으로 음독이나 혼독을 하지 않으면 해독불능하게 된다”고 한 것이나 “때로는 그 저의가 극히 비루하다하더라도 표면의 문자는 훌륭한 한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문시의 특징을 파악한 것은 실로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김삿갓의 언문시에 대한 이해도는 김삿갓의 언문시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미요시타쓰지는 김삿갓의 언문시의 특성을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김삿갓의 의도를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김삿갓의 대표적 언문시인 「스무나무아래서(二十樹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¹⁴⁾

특별히 눈에 띄는 시의 형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김삿갓의 작품 중에는 이러한 종류의 말장난이 아주 많은데 이러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의 시의 품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아주 좋지 않은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병폐라고 하는 것은 김삿갓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의(그리고 지금의) 일반 독자들에게 원래부터 온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저속취미를 우연히 그의 재능이 화합하여 이를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그들 나라의 일반적인 취미나 풍속등의 일단에 대해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¹⁵⁾

미요시타쓰지라는 시인은 일본의 전통적 서정 시인으로 시의 형식이 파괴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완고한 전통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김삿갓의 언문 파격시는 ‘말장난’으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김삿갓의 언문시의 특징에 대해서 ‘병폐’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소마키요시에 비해 볼 때 미요시는 김삿갓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언문시를 썼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론에서 필자는 소마키요시가 이응수의 『김립시집』에 수록되어있지 않는 시 2편을 소개하고 있

し、常に狀元を占めざるはなく、その詩風文藻は科生憧憬の的であつた。作品として幾多の漢詩の外に、狂詩、破字詩、諺文詩、狂句狂文あり。奇想天外、當意即妙、人をして抱腹絶倒せしめ、然かも寸鉄人の胸中の抉ぐるの概あり。特に諺文詩や破字詩等に到りて鮮音で音読または訓読するでなければ解読不能であり、また時にその底意が卑猥極まるに拘らず、表面の文字は立派な漢詩や成句としか思われず、これ等鮮語を解するのみが密かに人知れず思い出し笑いに興ずる語り草となるであろう(相馬清, 『金笠の詩風』, 『朝鮮學報』48輯, 1968, p.2.)

14) 二十樹下三十客 人間豈有七十事 四十家中五十食 不如婦家三十食

大意: 스무나무아래에인즉 설익은나그내에게 망할놈의집에서는 신밥을 준다. 인간에 어찌 이런일이 있을까 에-돌아가 내집 설은밥을 먹음만가지 못하다.(시의 인용 및 大意는 李應洙編 『金笠詩集』에 의함. 이하의 김삿갓 시의 소개도 이와 같음.)

15) 別段珍しい仕掛けでも何でもないが、金笠の作品中にはこの種の語呂遊びが極度に多く、それは我々を閉口させるものであると共に、筆者のみるところでは、彼の詩品を著しく引下げるもので、甚だ始末の悪い病弊であるが、思ふにこの種の病弊は、笠一個のものではなく、當時の(さうしてなほ今日の)一般讀者の側にそもそも温床として存するところのその低俗趣味を、たまたま彼の才氣が迎へ容れて、これを十分に發揮したものといふべき筋合いのもので、彼地の世上一般の趣味風尚の一端をこれによつて窺ひ知りうるのも、或は時に一興であらうか(三好達治, 앞의 책, p.195.)

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최석의는 『방랑의 천재시인 김삿갓(放浪の天才詩人金笠)』(集英社新書, 2001)에서 “주목할 점은 이응수의 원전 이외로부터 「樂民樓」, 「胡地花草」 두 편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라고 소마를 평가하고, 자신의 번역시집 『김립시선』(平凡社, 2003)에서 이 두 시를 수록하여 소개하고 있다.¹⁶⁾ 그리고 소마키요시는 논문가운데서 발굴경위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두 시를 잠시 인용해 보도록 하자.

樂民樓

宣化堂上宣火党	선화당상선화당하니
樂民樓下落民淚	락민루하락민루라
咸鏡道民咸驚逃	함경도민이 함경도하니
趙岐泳家兆豈永	조기영가조기영가

선화당이란 관찰사 공관에서 관허의 화당(만주의 마적류)들이 설치고
 낙민루 아래에서는 백성의 눈물이 떨어진다.
 함경도 백성은 모두 놀라서 도망가니
 조기영(관찰사이름)의 가운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¹⁷⁾

소마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함경도 관찰사 조기영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던 때 지은 것으로 운(韻)도 없고 평측(平仄)도 없지만 조선어 음으로 읽게 되면 발음이 재미있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⁸⁾ 이 시를 다시 음독해 볼 때 ‘선화당상선화당/낙민루하락민루/함경도민함경도/조기영가조기영’이 된다. 조선어의 동일음을 반복함으로 재미있게 만든 한시라는 것을 소마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어를 이해하는 일본인이 김삿갓의 언문시의 묘미를 이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樂民樓」에 등장하는 조기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최석의가 『별본청구야담(別本靑邱野談)』의 「조기영북백시악사다단(趙岐泳北伯時惡事多端)」의 기록을 근거로 “관내의 행정권, 사법권, 징세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기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소마키요시가 선화당(宣化堂)을 만주의 마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최석의는 두만강 건너편에서 침입해 오는 여진족의 도적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이러한 시는 이조말기의 양반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힘 없이 수탈당하는 일반서민의 고통을 재치 있게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다.

16) 崔碩義, 『放浪の天才詩人金笠』, 集英社新書, 2001, p.187, 최석의는 이 두 시를 자신의 저서 『金笠詩選』(平凡社, 2003)에서는 「樂民樓」는 해학편에, 「胡地花草」는 언문 파격시 편에 각각 수록하고 있다.

17) 相馬清, 「金笠の詩風」(『朝鮮學報』第48輯, 1968), 시의 인용과 해석은 소마의 논문에 의한 것임. 다만 이 시의 해석은 소마의 일본어 역을 필자가 한국어로 옮겼을. 뒤에 인용하는 「胡地花草」도 이와 같음을 밝혀둔다.

18) 相馬清, 앞의 책, p.15.

19) 崔碩義, 앞의 책, p.62.

다음으로 「胡地花草」를 인용해 보기로 하자.

胡地花草

胡地無花草 호지에무화초라하니
 胡地無花草 호, 지에무화초리요
 胡地無花草 호지에무화초라도
 胡地無花草 호지인들무화초라

호지에 화초가 없다하니
 어찌해서 화초가 없는 것일까?
 호지에 화초가 없다하더라도
 어느 땅인가에 화초가 없으랴²⁰⁾

이 시 또한 동일음을 반복한 김삿갓의 재치를 보여주는 시이다. 다만 이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서 그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많이 있는 시이다. 최석익은 ‘胡地’에 대해서 “첫째는 흉노가 사는 땅, 둘째는 아득히 먼 곳, 셋째는 胡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문의 조사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소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 않다.²¹⁾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마키요시는 김삿갓의 언문시, 파자시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작시(作詩)를 의뢰받아서 5음4행을 동일자구(字句)로 쓴 것이다. 부탁한 쪽에서 “선생님! 이것은 기승전결 모두 같은데 이것도 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힐문했다. 김삿갓은 태연히 “그것은 네가 무식해서 읽기를 잘못하기 때문이니라”하면서 이같이 읽어서 들려주었다.²²⁾

김삿갓의 언문시와 관련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일본연구자는 소마키요시외에 미요시타쓰지 정도에 불구하다. 그런데 미요시의 경우는 김삿갓의 언문시의 의도와 그 깊이를 소마키요시 만큼은 이해하고 있지 못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김삿갓 문학을 접한 시대적 분위기의 상이점과 더불어 보수적인 문학자와 어학자라는 학자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특히 미요시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통시인이며 한시에도 조예가 깊은 문학자로서 한시의 전통성을 파괴하는 김삿갓의

20) 相馬清, 앞의 책, p.15, 재인용.

21) 崔碩義, 『金笠詩選』, 平凡社, 2003, p.242.

22) これは人に作詩を頼まれて五音四行を同一字句で書いた。そこで頼んだ方では、「先生!これは起承転結みな同じだが、これでも詩か」と詰問した。金笠は平然として「それはお前方が無学で読み方が悪いからだ。と左の如く読んで聞かせた。(相馬清, 앞의 책, p.15.)

시적 행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소마키요시가 그의 논문 「김삿갓의 시풍(詩風)」 안에서 취하고 있는 김삿갓 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방랑편의 「二十樹下」는 어느 집에서 쉰 밥을 내 놓은 것에 대해 숫자만으로 심경을 표현한 시이다. 여기에 대해서 소마키요시는 “한국어음으로 읽게 되면 주인에 대해서 심한 매도의 말과 함께 사랑으로 하여금 심한 웃음을 자아내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²³⁾ 이 시에서 김삿갓이 늘어놓는 심한 매도의 말이란 ‘서러운’ ‘망 할’ ‘쉰 밥’ 등을 가르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전누대편의 「九月山」이라는 시는 ‘九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만들어진 시이다. 산의 이름이 ‘九月’이고, 이 산을 방문한 것도 ‘九月’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재미있게 만든 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한시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읽어서 발음이 재미있다”라고 하고 있다.²⁴⁾ 그리고 「破格詩」라는 제목의 한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음(韻)이나 평측(平仄)에 구애받지 않고 또 문자의 표면의 뜻만 가지고는 진의(真意)를 나타낼 수가 없다. 한국의 자음에 의지하는 발음과 속어의 훈(訓)이 연결되어 신랄한 야유를 하게 되는 것에 김삿갓다움이 엿보인다고 하겠다.²⁵⁾

‘김삿갓 다음’을 ‘신랄한 야유’로 보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고 하겠다. 소마키요시는 김삿갓의 언문시의 기능을 이렇게 지배층에 대해 신랄하게 야유하는 점에서 인정하고 있다. 김삿갓의 언문시는 음독과 훈독의 과정을 거쳐서 해독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소마키요시의 인식은, 김삿갓의 언문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삿갓의 언문시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한국말을 능숙히 구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김삿갓 시의 표면적인 특성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 예를 들면 김삿갓 생존 당시의 한시의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양반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김삿갓 언문시의 미묘한 특성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⁶⁾ 평측의 파괴를 통한 이러한 언어의 놀이문화는 일본에서도

23) 相馬清, 앞의 책, p.4.

24) 相馬清, 앞의 책, p.9.

25) これは韻や平仄に囚われず、また文字の表面の意義だけでは真意は表われない。韓国子音に依る発音と俗語の訓とが結び付いて皮肉な揶揄となるところに金笠らしさが覗かれる(相馬清, 앞의 책, p.13.)

26) 이러한 언문시에 대해서 본고의 연구대상인 이마무라요시오의 논문 「풍자와 서정 - 김삿갓 시의 감상과 비평 -」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김삿갓에게 언문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조선에 있어서 한시한문의 문학에서 조선문자(한글)의 문학으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김삿갓은 양반귀족의 문학관에서 말하자면 통속적인 문자, 속어로 시를 만들고 한자의 조선어독음과 조선어의 구어와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풍자나 언어유희등을 시작(詩作)에 시도하였다.」(今村と志雄, 「諷刺と抒情 - 金笠の詩の鑑賞と批評 -」, 『歴史と文学の諸相』, 勁草書房, 1976, p.198). 김삿갓의 언문시의 특성을 한시문학에서 한글문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뿐 아니라 식민지시대라고 하는 상황가운데서 『金笠詩集』의 편찬이 갖는 의미에도 주목하고 있다. 『金笠詩集』중에 한글관련 시가 많은 것에 주목하여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한글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金笠詩集』의 간행

에도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유행하였다고 하는데 소마가 이러한 일본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삿갓 시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다.

동물편의 「蚤」, 「虱」라는 작품의 해설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방랑시인인 마쓰오바쇼(松尾芭蕉)도 이러한 소재로 작시를 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김삿갓의 비범함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의 벼룩과 이에 관한 율시(律詩)에서 벼룩(蚤)에 물린 상처를 복숭아 꽃에 비유하고 이(虱)의 글자가 바람 풍(風)자가 되지 못한 글자의 형태로부터 매화꽃을 흐트릴 힘이 없다고 읊은 부분에서 정말로 김삿갓의 비범한 시인다움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²⁷⁾

그는 「蚤」의 제8구 ‘剩得桃花万方春’(피부에 남아있는 것은 몇 천인지 알 수 없는 복숭아 꽃의 봄의 추억을 간직한 것이다)와 「虱」의 제6구 ‘字不成風未落梅’(글자는 한 획 모자라 바람 虱이 되지 못하니 매화를 흩어놓을 힘도 없다)를 통해서 김삿갓의 시인으로서의 비범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있다. 벼룩에 물린 상처를 복숭아 꽃에 비유한 것, 그리고 ‘虱’과 ‘風’의 글자모양에 유의해서 바람이 되지 못했다고 한 점은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힌 관찰력과 비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논문의 모두에서 “여기에 수록된 것 중에는 반드시 해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한 시인다운 면을 보이는 것도 다소 수록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소개하고 있는 한시 중에서 「粥一器」, 「不如婦」, 「思鄉」 등의 작품은 이러한 그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그가 김삿갓의 파격시를 단순한 악시(惡詩)로 이해하지 않고 김삿갓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김삿갓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언문시의 표면만을 보지 않았다. 이는 김삿갓의 기행적인 측면과 파격적인 측면에 반응한 미요시타쓰지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파격성의 이면에 감추어진 김삿갓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통파 한시인으로서의 김삿갓의 비범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김삿갓 한시(漢詩)의 시적특성(詩的特性)

(1) 우아하고 이지적인 시적 풍조

이마무라요시오(今村与志雄)는 「풍자와 서정 — 김삿갓 시의 감상과 비평 —」이라는 제목 하에 논

사건을 알폰스 도테(1840~1897)의 「마지막 수업」에 비유해서 「민족공통어인 조선어가 멸절되기 전야에 이루어진」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7) 以上蚤と虱の兩つの律詩で、蚤では其の喰い跡を桃花に譬え虱では字形よりして、虱には成り得ないから梅花を散らす力がないと詠ずるあたり、真に金笠が非凡の詩人らしさを知るではないか。(相馬清, 앞의 책, p.9.)

을 전개해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는 김삿갓의 한시 20여 편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먼저 그는 김삿갓의 방랑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소개함에 있어서 「開城人逐客詩」, 「見乞人屍」²⁸⁾의 두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객사한 사람의 유해를 보고 지은 「見乞人屍」에서는 『万葉集』의 쇼토쿠다이지(聖德太子)가 지은 「家にあらば妹が手纏かむ草枕旅に臥せるこの旅人あはれ」(卷 3, 415)를 인용하거나 나가이가후(永井荷風)의 역시집(訳詩集) 『珊瑚集』의 「腐肉」(岩波文庫, 1938, 所収)를 인용하면서 시의 분위기를 현장감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김삿갓의 정통파 시인으로서의 면모에 대해서도 「秋風訪美人不見」, 「鶴城訪美人不見」 두 시를 언급하면서 「은은한 정조가 있어서 당대의 우아한 시를 읽는 것과 같은 정취가 있다」라고 평하고 있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한시는 생존 당시 이단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다. 특히 그의 파격적인 시의 형식으로 인해 그의 시는 우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²⁹⁾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이마무라가 김삿갓 한시의 ‘우아함’과 ‘정조’를 평가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이마무라가 김삿갓 시의 파격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아함’과 ‘정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방랑시인으로서의 김삿갓 시의 근본에 있는 김삿갓의 철학과 해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는 김삿갓의 시 「金剛山」 중에 나오는 ‘薄遊’라는 단어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³⁰⁾

‘薄遊’의 ‘薄’에는 그러한 굴욕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굴함이나 비참함도 없다. 그의 시는 어딘가 밝고 힘차다. 쓸쓸함, 슬픔을 노래해도 감상적이지 않다. 이지(理智)를 항상 발휘하고 있다. 아마 조선인민들에게 그만큼 사랑받은 시인은 없었을 것이다.³¹⁾

28) 不知汝姓不識名 何處青山子故鄉 蠅侵腐肉喧朝日 鳥喚孤魂吊夕陽 一寸短筇身後物 數升殘米乞時糧 寄語前村諸子輩 携來一簣掩風霜(노상에서 쓰러져죽은 걸인아 내 네 성명을 모른다마는 어느곳 청산이 네 고향이나 (중략) 前村에 있는 諸子輩에게 一語付託하노니 한삼치 흙을가져다 이 可憐한 死體의 風霜이나 가리여려무나)

29) 일부 사람들이 김삿갓의 시가 형식적으로 볼 때 시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에 『김삿갓풍자시전집』의 편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전아」라든가 「단장」이라는 것도 어느 시기, 어느 작품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역사적 환경, 또는 그 당시 일반적 문학풍조와 대비하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19세기 김립이 생존하던 시기의 문학에서 전아와 우아성 또는 단장을 찾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아 극히 뒤떨어진 이야기이며 부적당한 이야기이다.”(이응수 정리, 『김삿갓 풍자시 전집』, 실천문화사, 2000, p.267.)

30) 이 시는 칠언율시이며, 인생을 표류하다가 가을을 맞이하여 쓸쓸한 감회를 느끼는 중에 시를 읊는 친구들과 금강산의 산루에서 만나 세상의 근심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노래의 원시와 전체적인 뜻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江湖浪跡又逢秋 約伴詩朋會寺樓 小同人來流水暗 古龕僧去白雲浮 薄遊少答三年願 豪飲能消萬種愁 천하를 헛되이 漂浪하는이나 그대에게 또 한해 가을을 맞아 感懷悽悽한 중에 詩朋과 짝을 약속하여 금강산 寺樓에 맞났다. (중략) 三生동안의 願이라 그리워하는 이 금강산에 내이제 그 三生의 願을 약간분셈이여 이제잠간 求景하는 光 榮에 浴하노라.(후략)」

31) 「薄遊」의 「薄」には、そういう屈辱の思ひ出がいくつもこもっていたに違いない。だが、それでいて、卑屈さみじめがない。彼の詩は、どこか明るく、たくましい。さびしいさ、かなしさを歌っていても、感傷的ではない。理智がつねにはたらいっていた。おそらく、朝鮮人民に、彼ほど愛好された詩人はなかったであろう(今村と志雄, 「諷刺と抒情-金笠の詩の鑑賞と批評-」, 『歴史と文学の諸相』, 勁草書房, 1976, p.222.)

‘薄’라는 글자는 김삿갓의 방랑의 인생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이마무라는 김삿갓의 삶이 내일의 보장 없이 방랑처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떠돌이 인생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굴하고 쓸쓸한 인생을 보낼 만도 함에도 김삿갓의 시에는 ‘밝고 힘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쓸쓸함과 슬픔을 노래함에도 ‘감상적이지 않다’라고 김삿갓 시의 저변에 흐르는 정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김삿갓의 시의 성격은 ‘이치를 발휘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밝고 힘차며, 감상적이지 않고 이지적인 김삿갓 시의 기본 성격이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서민적³²⁾이고 운명적인 시적 특징

이마무라는 전술한 시 「見乞人屍」의 마지막 부분의 “寄語前村諸子輩/携來一簣掩風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³³⁾

김삿갓의 시는 역시 이조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적 폐단으로 신음하는 민중생활의 한 측면을 노래한 시이다. …… 조선봉건사회의 기층에 있었던 촌락공동체와 거기에서 배양된 인간 감정이 담겨있다고 한다면 나의 지나친 생각일까?³⁴⁾

객사한 절인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조선봉건시대의 ‘악한 정치로 신음하는 민중생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마무라는 말하고 있다. 조선봉건시대의 ‘악한 정치’에 대해서는 사토하루오도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마무라는 그러한 ‘악한 정치’로 인해 신음하는 일반 민중의 삶에 주목하고 김삿갓의 한시가 이점에 있어서 민중의 삶을 대변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마무라는 ‘譬世’라고 하는 시를 거론하며 “피지배자를 빈곤가운데 가두고 그 빈곤으로부터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김삿갓의 서민성을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그는 「自顧偶吟」 시를 소개하며 김삿갓이 “경제제민의 뜻을 잃지 않은 것 또한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함으로 김삿갓의 서민성의 의미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³⁵⁾

이마무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정치’로 표현된 조선봉건 정치의 실상과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의 삶을 말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배경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정약용의 「龍山吏」라는 시를 통해서 농민과 어민, 유랑민 등의 고통당하는 민중의 모습과 가혹한 정치의 실상을 부각시

32) 여기에서 다루는 김삿갓 시의 서민적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 항거성’이라는 항목과 연계하여 생각해도 좋으나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서민적’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33) 이 부분에 대한 이응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前村에 있는 諸子輩에게 一語託託하오니 한참치 흠을 가져다 이可憐한 死体の 風霜이나 가리려므나.”

34) 金笠의詩は、やはり李朝封建社会における秕政にあえぐ民衆生活の一側面を詠じた詩である。(中略) 朝鮮封建社会の基層にあった村落共同体とそこにはぐくまれた人間感情がこめられているというのは、私の思いすごしであろうか。(今村与志雄, 앞의 책, p.206.)

35) 今村与志雄, 앞의 책, p.207.

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삿갓의 조부가 관련된 홍경래의 난(1812), 갑오농민전쟁(1894)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김삿갓이 살았던 시대의 민중의 피폐상과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배경지식 및 사건을 설명하는 의도는 격변기의 불합리한 시대적 환경가운데서 김삿갓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말하고자 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방랑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김삿갓의 심정과 운명적인 방랑의 가치철학에 대해서 「自嘆」, 「斷句」, 「蘭臯平生詩」 등의 시를 통해서 논하고 있다. 「自嘆」³⁶⁾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김삿갓이 그 신세를 한탄한 작품으로서 인구에 회자되는 시라고 한다. 하늘의 높음은 구만리이다. 하지만 머리위가 막힌 것 같아 머리를 들기가 어렵다. 대지는 삼천의 대세계라고 할 정도로 광대(조선을 삼천리강산이라고 하니 이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일 것이다)하지만 내 몸을 편히 둘 곳이 없다. 오전 네 시 전후에 높은 누각에 오르는 것은 달을 보고 즐기고자 함이 아니다. 방랑의 몸이 하룻밤 쉼 곳을 찾기 위함이다. 3일간이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선인이 되고자 수행함이 아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⁷⁾

이마무라는 김삿갓의 머리 위에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조부의 죄로 인해 멸족처분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살지 못하고 방랑의 인생을 선택한 김삿갓의 운명적 인생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마무라는 김삿갓의 만년의 대작인 「蘭臯平生詩」를 상세히 분석함으로 일생을 방랑을 통해 생을 보낸 불우시인 김삿갓의 운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IV.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발표된 김삿갓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³⁸⁾ 본고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그들의 김삿갓 문학을

36) 嗟乎天地間男兒 知我平生者有誰 萍水三千里浪跡 琴書四十年虛詞 青雲難力致非願 白髮惟公道不悲 驚罷還鄉夢起坐 三更越鳥聲南枝 이 시도 金笠 자신의 自嘆인데 형식이 파격이다. 句 43調가 많고 52調이다. 嗚呼天地間에 남아로 태어나서 내 평생을 아는자 실로누구이겠노 孤影憧憧 오직내가 나를 알뿐이다. 浮萍草가 流水에 흘러다니듯 三千里를 浮浪한자취 어지러울뿐이오.(후략)

37) 金笠がその身の上を嘆いた作品として人口に膾炙した詩だという。天の高さは九万里ある。だが、頭がつかえる気がして、頭をあげるのがむづかしい。大地は、三千大世界というほど広い(朝鮮を三千里江山というから、それに懸けたことであろう)が、わが身をゆったりとおける所がない。五更(午前四時前後)、高樓に登るのは、月を觀てたのしむのではない。放浪の身が一夜のかりのねぐらにするためなのである。三日間も穀物をたつのは、仙人になる修行ではない。食を乞うて得られないからだ。(今村与志雄, 앞의 책, p.182.)

38) 서론에서 언급한 최석익의 자료는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논문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바라보는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그들의 평가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다양한 세대에 걸친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의 전통시인 김삿갓이 단발적이긴 하나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자체에 나름의 의미부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인들에 의해 제기된 김삿갓 문학의 양상이 국내연구와 어떤 점에서 중복되고 또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연구의 기반을 조금 넓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사토하루오의 간단한 언급에서부터 미요시 타쓰지, 소마키요시, 이마무라요시오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 김삿갓의 한시를 접하고 평가했다는 사실은 김삿갓 문학의 상징성, 인기 등을 말해 주는 또 하나의 좋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김삿갓 문학이 동아시아 문학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측면이 없는지 본고를 계기로 하여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들 일본인들의 김삿갓 한시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정치적 항거성」의 개념으로 김삿갓시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김삿갓 문학이 갖는 파격적이고 반체제적인 성향이 강하게 어필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리고 김삿갓의 여러 종류의 시 가운데서 「언문시」에 주목한 바 또한 김삿갓 문학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 주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김삿갓 한시의 시적 특질을 「우아하고 이지적」이며, 「서민적이고 운명적」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삿갓 한시의 핵심부분을 잘 이해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각 시대별로 각 개인의 특성별로 김삿갓의 한시가 이해되는 것이 다소 차이는 있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김삿갓 시인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다. 특히 식민지 시대의 민감한 시대분위기 가운데서 김삿갓 문학이 갖는 반체제성에 대한 언급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김삿갓의 문학이 갖는 파격적이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시의 생명력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본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김삿갓 한시의 수용이 한국적특성과 일본적 특성 가운데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상호 비교 하에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응수 정리, 『正本김삿갓 풍자시 전집』, 실천문학사, 2000.
 李應洙編, 『金笠詩集』, 啓明出版社, 1941.
 今村与志雄, 「諷刺と抒情 - 金笠の詩の鑑賞と批評 -」, 『歴史と文学の諸相』, 勁草書房, 1976.
 金素雲, 『乳色の雲』, 河出書房, 1940.
 崔碩義, 『放浪の天才詩人 金笠』, 集英新書, 2001.

- 崔碩義, 『金笠詩選』, 平凡社, 2003.
朴永國, 『金笠の遺産』, 永越郡編集部, 1992.
相馬清, 『金笠の詩風』, 『朝鮮學報』 48輯, 1968.
旗田巍, 『朝鮮の歴史』, 三省堂, 1974.
三好達治, 『屋上の鶏』, 文休社, 1943.

-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Ⅰ 日文 抄録 Ⅰ

日本内の金笠文学に対する評価様相

朴 相 度*

本稿は日本内で行われた金笠漢詩の文学的特性の理解に関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植民地時代の文学者である佐藤春生をはじめ、三好達治、相馬清、今村与志雄氏などの論考が研究対象となった。

そして、本稿の研究結果、日本人たちの全体的な観点からの金笠漢詩への理解は、鋭く、正確なところがあったと確認できた。ただし、暗鬱な時代的背景のもとで、金笠の漢詩の特性が政治的な側面で強調され、理解されたということも事実である。日本人による金笠漢詩の文学的な特質に対する理解は、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第一、「政治的抗拒」の象徴として理解されていた。第二に、金笠文学の核心である「諺文詩」に対して深く理解していた。第三、金笠漢詩の特質に対して「優雅で理知的」で、「庶民的で運命的」だと理解していた。

今後は、このような研究結果を土台にして、韓国と日本の相違なる文学的状况のなかで、金笠漢詩が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かということを比較的な観点で考察してみたい。

【キーワード】日本知識人、金笠、政治的抗拒、諺文詩、文学的特性

* ソウル女子大学 専任講師

Full-time Lecturer, Seoul Women's University